



중등과학교사의 유튜버 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중심으로—

신세인¹, 이준기^{2*}
¹충북대학교, ²전북대학교

A Study on the Secondary Science Teachers' YouTuber Experience and Identity: Focusing on Foucault's Concept of Heterotopia

Sein Shin¹, Jun-Ki Lee^{2*}
¹Chungbuk National University, ²Jeonbuk National University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19 September 2022

Received in revised form

17 November 2022

26 December 2022

Accepted 2 January 2023

Keywords:

Youtube, Heterotopia, Secondary science teachers, YouTuber experience, Identity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case study of secondary science teachers who are doing educational activities in YouTube. In particular, this study attempts to interpret this case based on Foucault's concept of 'Heterotopia', which means a space that allows for private freedom or deviance by reflecting various utopias without the norms and constraints from every day or real space. Five secondary science teachers who voluntarily opened a personal channel on the YouTube platform and actively uploaded their own videos related to science education participated in the study.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five secondary science teachers, data were individually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ase study method. For valid interpretation of the study, we also referred to the video contents, teacher training materials, and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produced by the participants. As a result of the study, seven themes were revealed: 'Desire for one's own unique educational activities,' 'Youtube as an extended classroom space,' 'Expanded network of relationships beyond the classroom barrier,' 'Satisfaction of desire for recognition and experience of identity as a YouTuber,' 'Tension between the educational space and the YouTube,' 'Space to be reborn as a craftsman,' and 'Finding one's own direction as a Teacher-YouTuber.' Given those findings, we found that the identity and desire of secondary science teachers, which were limited in the existing secondary schools and classrooms, was expanded in a new space called YouTube. In addition, we suggested that YouTube could be a space where science teachers can realize their own ideals and feel the joy. And simple regulating teacher's behavior in Youtube space only based on norms and standards shared in traditional educational space would rather hinder their healthy construction of identity and growth.

1. 서론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단조로운 일상이나 혹은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모범생의 일과를 나타내는 우스갯소리로 '개는 어디 딴 데를 안가. 오로지 집-학교-집-학교뿐이야'라는 식의 말을 할 때가 있다.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누군가에게는 수면과 휴식의 공간 집 그리고 이의 대척점에 있는 학습의 공간으로서의 학교라는 대칭 구조의 경로 이동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차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똑같은 학습의 공간인 집과 학교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학생의 이동 경로를 '집-학교-학원-도서관'으로 늘려 잡아 보아도 상황은 마찬가지가 된다. 학교가 파하면 곧장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도서관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우등생의 미담 사례 속에는 이야기 속 주인공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학교나 도서관은 그 공간에 사람이 드나들며 자신과 해당 공간을 연결 짓는 행위만으로도 '모범생' 혹은 '우등생'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되는 문화적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개인이 특정 공간과 맺어가는 관계는 사회문화적으로 해당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지표가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공간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모범적인 혹은 우수한 교사가 있어서 그의 일과를 나타내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 교사의 공간이란 어디일까? '집-학교' 혹은 '집-학교-도서관'을 오가며 열심히 가르쳤다는 말은 물론 교재연구나 자기 연찬의 과정에서 교사가 드러내는 모습인 '학생으로서의 교사' 또한 이런 공간과 네트워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교사의 정체성은 더 훌륭한 수업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 - 즉, '학생'이 된다. 만약 어떤 교사가 퇴근 이후 혹은 근무 중에도 수시로 유튜브나 블로그를 드나든다면 그 교사는 매우 불량한 교사일까? 또 이 교사가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혹은 뉴미디어 공간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해당 교사는 공간과 어떤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일까? 비록 가상공간이지만, 학생이 '집-유튜브-학교-유튜브' 같은 공간 활용의 동선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학생을 모범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8036581)

교신저자 : 이준기 (junkij@jbnu.ac.kr)

<http://dx.doi.org/10.14697/jkase.2022.42.6.579>

학생이나 우등생이라고 여기기보다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것이다. 하물며 교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가상의 공간인 유튜브는 둘째치더라도 ‘학교-낙시터-학교-낙시터’ 같은 방식의 공간 이동을 하는 교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같은 공간이 아닌 낙시터라는 공간은 해당 교사에게 일탈과 오락의 공간이므로 해당 교사는 이 공간에서 교사일 수 없으니 ‘학교-낙시터-학교-낙시터’와 같은 공간 이동은 ‘매우 태만한 교사라고 살아가는 방증이다’라고 누군가 결론 내린다면 그것은 합당한 판단일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을 수도 있겠지만 교사가 어떤 공간과 관계 맺기를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공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포스트-코로나와 뉴노멀이라는 상징적인 어휘들을 통해 대표되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는 교육계에도 적잖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왔다 (Noh, Jung, & Woo, 2021; Wardak, Vallis, & Bryant, 2022). 특히 그중에서도 자의반 타의반 이루어지게 된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시도들은 그동안에는 생각해보지 못하던 다양한 교육적 ‘공간’들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일상 공간과 교수-학습 공간의 모호한 경계를 성찰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 미디어라는 공간은 새로운 교육의 공간으로서 더욱 그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Heo, Kim, & Yoo, 2021; Lee & Hong, 2021; Wardak *et al.*, 2022).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미디어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급격하게 촉진되었다. 새로운 미디어 공간 속에서는 누구나 정보를 소비하고 또 생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매력으로 인해 사람들은 미디어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고도 할 만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미디어 공간 속에서는 많은 정보와 가치들이 전달하고 또 익히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 작용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Choi, Kim, & Lee, 2021; Lee, 2021; Shim, 2022).

‘공간’의 관점에서 볼 때, 과학교육은 기존의 대표적 형식교육의 공간인 학교나 혹은 일부 과학 관련 교육기관, 과학관, 자연체험기관 등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과 COVID-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 온라인 클래스룸 등 온라인 내에서도 다양한 과학교육의 공간들이 확장되고 있다 (Heo *et al.*, 2021; Lee & Hong, 2021; Jeong & Son, 2021). 특히 최근 많은 사람이 일상을 함께하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공간 또한 하나의 과학교육의 공간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많은 유튜브에는 ‘과학’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채널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과학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과학문화 혹은 과학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과학 관련 유튜브 콘텐츠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Jeong & Son, 2021; Kim, Kang, & Lee, 2021; Shin, Ha, & Lee, 2020; Jyun & Hong, 2010). 그러나 새로운 과학교육 공간이라 볼 수 있는 1인 미디어 환경에서 과학교육 관련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공유하는 주체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라는 새로운 과학교육의 공간으로 진출하여 자신만의 과학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과학교사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라는 공간과 관계를 맺으며 나타나는 교사의 정체성(identity)을 중심으로 과학교사이자 과학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크리에이터로서 활

동하는 이들의 경험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의 결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Ko, 2003). 특히 개인이 어떠한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혹은 어떠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이들의 외부와의 상호작용의 양상과 경험은 다양하며, 결국 공간과의 상호작용 그 자체에 의해 개인의 정체성은 구성된다고도 볼 수 있다 (Park, 2013). 특히 온라인은 기존의 공간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공간으로서, 기존 공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욱 쉽고 빠르게 정체성이 구성되거나 창조된다고 알려져 있다 (Castells, 1997). 대표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초등교사 2인의 생애사를 토대로 이들의 정체성과 역할 구성에 관해 연구한 Choi *et al.*, (202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튜브 활동을 통해 연구에 참여한 초등교사들은 학교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한 역할과 정체성을 끊임없이 구성해감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중등학교와 교실 혹은 과학실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만 다루어져 왔던 ‘과학교사’라는 정체성 또한 유튜브라는 공간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되고 변화할 가능성이 큼에 주목한다.

공간과 인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1967년 파리 건축연구회 회의에서 발표한 푸코의 독특한 공간개념인 헤테로토피아(hétérotopie; heterotopia) 개념을 이론적인 렌즈로 활용하고자 한다 (Flavin, 2021; Lee, 2014; Lee & Wei, 2020; Liddle, 2021; Wardak *et al.*, 2022). 푸코는 그의 학문적 역정 속에서 다양한 영역을 넘나든 학자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공간에 관한 담론을 통해 주체와 권력의 문제를 깊이 다룬 바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말 그대로 ‘다른’ 장소, 다시 말해 ‘이질적 공간’이며, 일종의 반(反)공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푸코가 유토피아에 대비시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신조어이다. 헤테로토피아는 ‘어떤 곳도 아닌 곳이지만 어디에나 있는 곳’일 수 있으며 그래서 ‘장소 없는 장소’가 된다 (Kim, 2017; Lee, 2014). 이상적 공간으로 상징되는 유토피아는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 공간을 말한다. 많은 이들의 이상향이 반영된 비현실적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유토피아라는 장소는 현실사회나 현실 공간에 반(反)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현실 세계 안에 존재하면서도 유토피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들이 존재해 왔는데 이곳이 바로 헤테로토피아다 (Foucault, 2014b).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가 실현된 실질적 공간으로서 현실사회 속 공간에서 적용되는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이며 동시에 일상과의 중첩을 통해 접근 가능한 일탈의 장소라는 특징을 지닌다.

푸코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헤테로토피아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며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다 (Kim, 2017; Lee, 2014). 그는 헤테로토피아의 전형적인 예들로 낯선 여행지, 아이의 인디언 천막, 집에 부속된 작은 다락방, 특정 시기에 화려한 축제의 도시가 되는 폴리네시아의 휴양촌, 묘지, 정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주체의 쾌락과 판타지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임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규범의 지배를 받는 현실 공간에서는 경험해 보기 어려운 것들을 누리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Foucault, 2014a). Kim(2017)은 헤테로토피아의 이러한 특성이 개별 주체들의 ‘사적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일종의 자기 배려 공간으로 재개념화한 바 있다. 특히 최근의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공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와 같은 뉴미디어 가상공간에 대해서

까지도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해석의 렌즈로 적용한 선행연구들이 적잖이 이루어지고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포스트디지털 학습 사회 속에서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생경한 공간들을 만나 그 공간 속에서 주체가 자신만의 경험들을 통하여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시켜 가는지 탐색해보는데 더없이 좋은 해석의 렌즈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Flavin, 2021; Shim, 2022; Wardak et al., 2022). 이 연구는 유튜브라는 1인 미디어 공간이 기존의 제도에서의 교실이라 볼 수 없는 새로운 교실 밖 과학교육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교실 안팎에서의 자유로운 접속이 가능한 공간이며, 기존의 교실 수업과는 구별되는 방식의 행태가 발견되고, 다양한 이질적 주체들을 마주할 수 있고, 기존의 교실에서는 중요하지 않았던 가치, 규범들이 복잡하게 얽힌 공간으로서 기존의 가치 및 규범과 다른 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학교사들에게 헤테로토피아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정체성은 교실 혹은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접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 교사의 정체성은 그가 활동하는 학교와 교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다양한 개인적-문화적 공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교사의 정체성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학교 교실 속에서 드러나는 교사전문성, 교육 및 교과 관련 정체성뿐만 아니라 학교 교실 밖에서 한 개인으로서 겪는 고유한 개인적-사회적 경험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국내 교사 정체성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So & Choi(2019)는 교사의 정체성 연구가 제도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규범적으로 강조된 ‘교사다움’을 목표로 한 정체성의 확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교사 또한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정체성들로 구성”된다는 관점에서 교사들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교사-되기(becoming)’의 역동적 과정을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So & Choi, 2019; Miller et al., 2017). 이 연구는 1인 미디어라는 헤테로토피아 공간 속에서 교사들이 활동하는 사례를 질적으로 탐색하고 이 안에서의 기존의 공간과는 다른 양상의 ‘과학교사-되기’, 즉 과학교사로서의 정체성 구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기존의 공간과는 다른 복잡하고 이질적인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교사에 대한 접근은 기존의 학교와 교실 등 일부 전통적 교육 공간을 중심으로 이해되었던 과학 교사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성장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른 공간, 헤테로토피아

헤테로토피아는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가 1976년 3월 14일 파리 건축연구회의 건축학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강연에서 처음 제시한 고유한 개념이다(Flavin, 2021; Lee, 2014; Lee & Wei, 2020). 푸코는 이 강연에서 헤테로토피아라는 일종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틀을 제시했으며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이 해석틀의 가장 중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연은 당시 참석한 회원들끼리만 돌려보는 타자본으로만 존재하다가 1984년에 와서야 공식 출판될 수 있었는데 푸코가 사망 직전 승인한 마지막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공간에 대한 푸코의 고민을 담아낸 메인 텍스트인 「다른 공간들(Des Espace Autres; Of other space)」는 본래의 강연 제목과 동일하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후 헤테로토피아 개념은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활용되면서 더욱더 확장되게 되었다(Kim, 2007; Lee, 2014; Shim, 2022). 푸코는 이 강연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자신의 발제를 시작한다(Foucault, 2014a).

“현 시대는 아마도 공간의 시대일 것이다. 우리는 동시성의 시대, 병렬의 시대, 가까운 것과 먼 것의 시대, 인접성의 시대, 분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세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거대한 생명체로서보다는, 여러 지점을 연결하고 그 실타래를 교차시키는 네트워크 크로서 경험하는 시기에 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논쟁을 자극하는 이데올로기적 갈등 가운데 어떤 것들은 시간의 경건한 후손들과 공간의 열렬한 거주자들 사이에서 펼쳐진다고 말 할 수도 있으리라(Foucault, 2014a).”¹⁾

「다른 공간들(Des Espace Autres; Of other space)」을 통하여 푸코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공간의 시대이며, 공간이야말로 주체의 문제를 가능하게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선언은 푸코의 공간에 대한 관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는 세계를 ‘여러 지점을 연결하고 그 실타래를 교차시키는 네트워크’로서 경험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간의 문제를 배치와 네트워킹으로 바라보았다. 푸코는 공간을 크게 세 가지 유형, ‘현실 세계의 공간’, ‘유토피아’, 그리고 ‘헤테로토피아’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의 공간개념 중 핵심 개념인 헤테로토피아는 사실상 유토피아 개념에 대한 하나의 대척(contre) 개념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푸코가 새로이 만든 독창적인 개념이다(Johnson, 2013). 유토피아는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실재하는 장소가 없는 공간, 다시 말해 현실에서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없는 이상향이라면, 헤테로토피아는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파악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실재하는 공간이다. 푸코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하여 유토피아와 헤테로토피아의 관계를 설명한다(Foucault, 2014a).

“마찬가지로, 아마도 모든 문화와 문명에는 사회 제도 그 자체 안에 디자인된, 현실적인 장소, 실질적인 장소이면서 일종의 반 배치이자 실제로 현실화된 유토피아인 장소들이 있다. 그 안에서 실제 배치들, 우리 문화 내부에 있는 온갖 다른 실제 배치들은 재현되는 동시에 이의 제기당하고 또 전도된다. 그것은 실제로 위치를 한정할 수 있지만 모든 장소의 바깥에 있는 장소들이다. 이 장소는 그것이 말하고 또 반영하는 온갖 배치들과 절대적으로 다르기에, 나는 그것을 유토피아에 맞서 헤테로토피아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유토피아들과 절대적으로 다른 이 배치들, 즉 헤테로토피아들 사이에는 아마도 거울이라는, 어떤 혼합된, 중간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한다(Foucault, 2014a).”

헤테로토피아는 모순된 측면이 있는 공간인데, 현실 공간을 표상하면서도 현실과 경쟁하고, 현실을 반전시키며,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위의 언급과 같이 푸코는 인간이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 헤테로토피아라고 강조하였다. 물론

1) 해당 번역문은 「다른 공간들(Des Espace Autres; Of other space)」들어본 혹은 영역본 1페이지에 등장하는 선언으로 해당 문장은 Galimard가 엮은 Les hétérotopies의 한국어 번역본인 헤테로토피아(이상길 역, 2014)중 p41의 내용을 따랐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어떤 공간을 헤테로토피아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Foucault, 2014a; Kim, 2007). 이 과정에서 헤테로토피아의 여섯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모든 인간 사회에는 자신만의 헤테로토피아가 존재하며 그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둘째, 한 사회는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전부터 존재하던 헤테로토피아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다. 셋째, 헤테로토피아는 하나의 실제 장소에 서로 양립 불가능한 복수의 공간이나 배치를 나란히 구현할 힘이 있다. 넷째, 헤테로토피아는 보통 전통적 시간과 단절되는 방식으로 흘러간다. 다섯째, 헤테로토피아는 언제나 그것을 고립시키는 자신만의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전제한다. 여섯째, 헤테로토피아는 나머지 공간들에 대해 나름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다(Foucault, 2014a; Lee, 2014). 푸코는 각각의 원리들에 대해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헤테로토피아의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분리된 비밀 공간인 유년기의 다락방, 시간이 축적되어 현실세계와 다르게 흐르는 듯 느껴지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일상의 시간이 단절되는 듯 느껴지는 한시적으로 열리는 장터나 휴양지, 일종의 특정한 행동이나 의식으로 개방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군대, 잠시 일상의 규범을 벗어나 누군가의 쾌락과 판타지를 극대화하는 공간인 항해 중인 크루즈 선상 등이 그것이다(Foucault, 2014a, 2014b; Lee, 2014).

2.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유튜브 공간

앞절에서 우리는 푸코가 제시하는 헤테로토피아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활세계 혹은 현실공간의 제약과 규범을 잠시나마 잊고 사적 자유나 일탈을 가능케 해주는 소위 실현된 유토피아의 성격을 내포한다는 것을 조망한 바 있다(Foucault, 2014a; Kim, 2007).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간은 인간의 삶이 펼쳐지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사라지고 변경되고 있음 역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현대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가상공간'은 과연 헤테로토피아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푸코 자신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이 짧은 강연에서 다루어진 이후에는 개념 제안자 본인이 아닌 후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고 확장되며 연구되었기 때문에 헤테로토피아의 정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구체성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었다(Kim, 2007; Shim, 2022; Yon, 2022).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코 자신이 강조한 바처럼 애초에 다양한 유형의 헤테로토피아가 인간의 삶 속에 함께 해왔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변모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포스트디지털 세계 속에 새롭게 열린 공간인 가상공간 역시 헤테로토피아 공간으로서의 개념 논의를 해볼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Flavin, 2021; Shim, 2022; Wardak et al., 2022).

푸코가 '현 시대는 **공간의** 시대이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현 시대는 **가상** 공간의 시대이다'라고 빗대어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치 현대인의 일상에서 가상공간 내에서의 삶은 중요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펼쳐진 뉴노멀은 이러한 공간을 우리 곁으로 부쩍 다가오게 했다(Wardak et al., 2022). 한국의 경우 2019년 통계로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2.5시간 정도이며, 동영상 시청이나 음악감상, 게임 등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유튜브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하나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로 뽑히고 있다. 2020년 3월 한 달 사이에만 28,870,000명의 방문을 자랑하는 뉴미디어 플랫폼 유튜브는 OTT 플랫폼과 더불어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또 다른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또한 유튜브 이용자들은 한달 평균 24.4 시간이나 유튜브 공간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한 달에 적어도 하루(24시간) 이상을 유튜브 공간 속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Lee, 2021).

유튜브 공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유튜브는 가입 절차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개방적인 공간이다. 둘째, 시공간에 의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현실세계의 시간이나 공간개념을 뛰어넘는 공간이다. 셋째, 소셜미디어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넷째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들은 유튜브가 여러 가지 기존 물리적 공간들의 대안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학습 등과 같은 상황의 연속으로 인하여 유튜브 역시 특유의 개방성으로 인해 손쉽고 편안한 대안적 학습 및 소통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Choi et al., 2021; Jyun & Hong, 2010; Kellner & Kim, 2010; Jeong & Son, 2021; Rosenthal, 2018; Seong et al., 2021).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많은 교사가 저마다의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고 일명 '쌤튜버'라 불리는 교사-유튜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대면 교육 활성화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유튜브 공간을 발견하거나 혹은 경험하면서 교원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Choi, Kim, & Lee, 2021). 2020년 집계 상황을 보면, 현직교원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 및 활동 상황은 운영 중인 채널 수가 2,122개로 네이버 TV(11개), 아프리카 TV(3개), 트위치 TV(4개), 팟빵(4개), 팟캐스트(4개) 등 여타의 소셜미디어와 비교해 볼 때 98.8%를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수라고 할 수 있다(Seong et al., 2021).

비록 가상공간이 푸코가 언급한 헤테로토피아 개념으로 인식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Kim(2007)은 다소 회의적인 시선을 보여주었으나, 최근의 많은 선행연구는 현대인의 삶에서 가상공간이 주는 무시할 수 없는 의미로 인하여 가상공간을 헤테로토피아로 해석하는 견해들을 상당수 제시하고 있다(Flavin, 2021; Shim, 2022; Wardak et al., 2022; Lin & Yang, 2020). 이는 마치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전에 없던 헤테로토피아 공간이 생기기도 하며, 기존 공간의 의미가 변화되기도 한다던 푸코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특히 많은 가상공간은 현실 세계에서의 일상성 혹은 규범에서 요구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행동을 수행하거나 정체성을 지니는 것을 가능케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공간과 차별화되고 나아가 기존 공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푸코가 현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견된다고 이야기 한 '일탈의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 of deviation)'로 작동한다(Lin & Yang, 2020).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란 기존 공간에서 지배적인 정상성 혹은 규범에 대한 요구에서 배제되거나 벗어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이다. Flavin(2021)은 온라인 가상공간 속에 구축되는 집단지성적 백과사전 공간인 Wikipedia에 대해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해석 렌즈로 적용하여 분석을 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Flavin(2021)은 Wikipedia가 주류 백과사전의 제작과 편

집방식이라는 규범적 권위에 저항하는 일탈과 자유의 공간이며,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수정과 삭제 편집이 허용된 개방된 공간이라는 점, 기여자의 학문적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닌 자발적 봉사라는 잉여노력의 산물이라는 점, 접근하는 이의 소속이나 학력 등 출신배경과 이력을 통한 차별이 없다는 점을 통해 주류사회와의 이질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은 사이버 공간 속일지라도 대안적이고 새로운 백과사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상향인 '유토피아'를 현실에 실현시킨 것으로 일종의 실현된 유토피아로서의 공간인 헤테로토피아로 볼 수 있다. 또한 Lee & Wei(2020)는 가상공간인 소셜미디어 속에서 등장하는 해시태그, 공유, 프로필, 추억, 라이브 및 개인 정보 설정과 같은 기능들에 대해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원리를 적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 공간이 누구에게나 열린 '장소 없는 장소' - 즉, 다른 공간(other space)이며, 기존 전통적 질서와 규범과 맞지 않는, 나아가 전통적 규범에 이의를 제기하고 저항하는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로서 보고자 한다. 더욱이 1인 미디어의 특성상 채널을 운영하는 '나'의 특성이 영상 속에 오롯이 등장하며 나의 취향을 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욕구와 판타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해방공간이라는 차원에서 현실의 반(反)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살펴 볼 때, 유튜브 공간은 학교 그리고 교실이라는 강한 규범과 권위가 배태된 공간과 네트워킹하며 살아가던 교사들에게 하나의 대안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통적 교실과 헤테로토피아를 오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사유와 경험을 하며 기존의 공간에서만 머물렀던 그들과는 다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헤테로토피아 개념이라는 해석 렌즈를 통해 1인 미디어 공간을 보고 그 안에서의 독특한 경험과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 학교와 교실이라는 전통적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공간 속에서 교육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공간 속에서는 기존의 공간에서의 규범과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규범과 가치들이 혼재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정체성은 계속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교육계는 향후에도 수많은 헤테로토피아를 마주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라는 헤테로토피아를 중심으로 교육 공간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교사의 실질적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1인 미디어 뿐 아니라 추후 나타날 다양한 교육 관련 헤테로토피아 속 교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시사점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I. 연구방법

1. 참여자

이 연구에는 중등과학교사이면서 동시에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과학 교육 관련 영상 콘텐츠를 최근 1년여간 활발하게 제작 및 공유했던 5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을 위해 먼저 연구자들은 유튜브에 '과학', '학교 과학'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여 최근 1년여간 지속적으로 과학 학습 및 과학 실험 관련 영상이 올라오는 채널을 탐색했다. 탐색을 거쳐 현직 과학교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9개의 유튜브 채널들을 선정하고, 채널에 공개된

메일주소로 연구 주제에 대한 소개와 연구 참여 안내문이 담긴 파일을 발송하였다. 이 중 4인의 과학교사가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혔다. 또한 한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의사가 있는 현직 과학교사이자 유튜버 1인을 추천받아 동일한 절차로 연구 참여를 수락 받았다. 결과적으로 총 5인의 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4인, 여자 1인이었으며, 연구 진행 당시 4인은 중학교에 근무 중이였으며, 1인은 일반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였다. 참여자들은 2021년 11월에서 12월 연구 참여 당시 모두 5년 이내의 근무 경력을 나타내었다. 참여자들의 정보를 비롯해 연구 참여당시 근무학교급, 근무경력 및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Table 1과 같다. 이 연구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CBNU-202008-HR-0125)

Table 1. Demographics of participants

참여자	성별	근무 학교급	근무 경력	채널 구독자
A	남	중학교	2년 8개월	약 8,700명
B	남	고등학교	3년 8개월	약 2,500명
C	여	중학교	4년 7개월	약 1,100명
D	남	중학교	4년 7개월	약 5,900명
E	남	중학교	2년 8개월	약 1,200명

2. 자료 수집

유튜버 활동을 하는 과학교사들의 경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주요 연구 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심층면담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면담 전 참여자들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사전 질문지를 제작하고, 이를 이메일로 교환하며 사전 서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전 질문은 '선생님께서 유튜브를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시다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와 같이 유튜브 활동의 계기와 유튜브와 관련된 경험 등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경험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ZOOM)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 1인과 과학교육 연구자 2인이 함께 1시간~1시간 반 가량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때 연구 참여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 연구자들은 면담 이전에 각 연구 참여자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탐색하고, 일부 영상들을 시청하였다. 면담은 먼저 사전 서면 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나누고, 이후 연구자가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후속 질문을 하는 반구조적(semi-structured)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가 제작한 교사 연수 자료, 교수학습자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공받아 분석하며 이들의 경험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ZOOM에서 이루어진 각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이후 녹화되어 영상파일로 저장되었으며, 네이버 클로버 노트로 활용하여 1차 전사를 진행하고, 음성파일과 1차 전사본을 대조하여 수정 보완을 한 뒤 최종 전사본으로 만들어졌다. 사전 서면 면담 과정에서 얻어진 참여자들의 응답자료와 실제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전사본을 주된 자료로 삼되 이에 대한 타당한 해석을 위하여 참여자들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 이들이 직접 제작한 교사 연수 자료 및 교수학습자료를 참조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총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타당성을 더 확보하고자 하였다(Yin, 2017).

3. 자료 분석

이 연구는 ‘어떻게 국내 중등 과학교사들은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튜버는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닌 공간인가?’라는 중심 질문에 대하여 탐색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Yin(2017)에 따르면 사례연구는 “우리가 접하는 현상(phenomenon)과 맥락(context) 사이의 경계가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현상이 일어나는 맥락 안에서 해당 현상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실증적 연구 방법”이다. 즉 현상이 나오기까지의 원천이 되는 맥락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는 접근이다. 사례연구는 다루는 사례의 수나 사례에 대한 접근 방식에 따라 단일 사례연구와 다중 사례연구, 그리고 본질적 사례연구와 도구적 사례연구로 구별된다(Yin, 2017).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 5인의 사례들을 이해하는 다중 사례 연구이며, 사례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맥락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본질적 사례연구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질적 연구에 앞서 참여자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콘텐츠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채널의 콘텐츠들을 살펴보고 해당 콘텐츠들의 보편적 특성을 바탕으로 과학교육 관련 영상 콘텐츠의 유형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참여자의 채널에 해당하는 유형의 콘텐츠가 등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때 각 채널에서 유형별 콘텐츠의 개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영상의 일부 참여자의 채널에서는 특정 영상의 분할본과 전체통합본이 각각 다른 영상으로 공유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복된 내용의 영상이 나타나는 등 참여자마다 영상 제작 및 공유 방식이 다양하였으며, 하나의 영상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성격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 도출된 콘텐츠 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기 때문이다.

현직 과학교사들이 유튜브 활동, 즉 과학과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의 자발적 제작, 활용 및 공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과학교사들은 어떠한 경험을 했으며, 이 경험이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개인적 맥락과 주변의 사회적, 환경적 맥락을 무엇이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자 2인은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이들의 영상, 연수자료 등과 종합하여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집된 면담 자료 중 과학교사의 유튜브 활동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맥락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담긴 면담에서의 절이나 구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귀납적으로 주제를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두 연구자 간의 독립적인 분석과 종합 토의를 바탕으로 한 협의와 수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분석을 마친 후 작성된 연구 논문의 초고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유한 뒤 해석과 논의의 타당성을 검증받는 과정(member checking)을 거쳤으며 참여자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수정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가. 과학교사들이 제작한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유형

각 참여자들의 채널에 나타나는 콘텐츠들의 유형은 Table 2와 같다. 참여자들의 채널에 해당 유형의 콘텐츠가 등장할 경우 Table 2에 √표시로 나타내었다. 모든 참여자들의 콘텐츠들을 살펴본 결과 콘텐츠 유형은 크게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이 아닌 경우가 해당 유형의 콘텐츠가 각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모든 참여자들은 대부분 과학과 관련된 지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강의식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이 중에는 대부분 중등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과학 지식이 많았으나, 일부 참여자의 콘텐츠에서는 교육과정에서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거나 최신 과학적 뉴스, 과학사 관련 콘텐츠들도 다루었다. 둘째, 한 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참여자가 직접 과학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고 그 변화를 확인하는 시범실험(demonstration)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하였다. 이 또한 대부분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현장수업 유형의 경우 참여자 본인이 실제 학생들과의 진행한 과학 수업 과정을 공개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현장수업 유형의 콘텐츠를 제작한 참여자 A교사의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 형태로, 참여자 C교사의 경우 대면 수업으로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중 모습이 드러난 형태로 제작되었다. 넷째, 문제풀이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평가문항들을 풀이하는 방식의 형식을 의미한다. 다섯째, 일상기록은 교사의 수업준비과정, 교과지도 외 생활지도, 학교 안 교사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교육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비롯하여 교사 개인적 일상까지 다양한 교사의 일과를 다룬 방식을 의미한다. 여섯째, 현직교사 대상 정보 공유는 현직교사들에게 온라인 수업의 다양한 전략과 같은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일곱째, 예비교사 대상 정보 공유는 예비교사 대상 과학과 교원임용 준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다양한 유형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콘텐츠에서 다루는 내용 또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심화된 과학 지식, 과학 관련 도서 추천, 최신 과학-기술 정보 등 과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으며, 학교에서의 교과 외 교육 활동에 관한 정보공유 및 개인적 일상에 관한 내용의 콘텐츠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었다.

Table 2. The results of content analysis of video made by participants

참여자	콘텐츠 유형						
	강의	시범실험	현장수업	문제풀이	일상기록	현직교사 대상 정보 공유	예비교사 대상 정보 공유
A	√		√		√	√	
B	√	√		√	√	√	√
C	√	√	√	√	√	√	
D	√	√			√		
E	√	√			√	√	

나. 과학교사들의 1인 미디어 제작 및 공유 활동 경험

이 연구에서는 과학교사들이 1인 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라는 헤 테로토피아를 오고가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들을 토대로 이들의 정체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자신만의 고유한 교육활동에 대한 갈망’, ‘확장된 교실 공간으로서 유튜브’, ‘교실의 장벽 너머로 확장된 관계망’, ‘인정욕구의 충족과 유튜버로서의 정체성 경험’, ‘전통적 교육 공간과 유튜브 공간 사이에서의 긴장’, ‘장인으로 거듭나기’, ‘교사-유튜버’로서 자신만의 방향 찾기 ‘라는 총 일곱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아래에서는 각 주제별로 드러난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신만의 고유한 교육활동에 대한 갈망

참여자들이 사용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는 누구든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또한 자신만의 과학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용도로 유튜브를 사용하였다. 일부 참여자는 거꾸로 학습과 같은 시도를 시작하면서 교육용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해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고, 일부 참여자들은 COVID-19를 기점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튜버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들의 시작 시점이나 구체적 계기는 다양했으나 대부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EBS나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가 아닌 자신이 직접 만든 영상을 통해 학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에게 유튜브는 스스로 자신만의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적인 공간으로 여겨졌다. 아래의 교사 B의 언급에서도 나타나듯,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도 자신의 수업 속에서 자신만이 보여주고 싶고 전하고 싶은 콘텐츠, 즉 교사 개인의 마음에 꼭 드는 콘텐츠가 없다는 점은 이들이 기존 콘텐츠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남들이 잘 만든 것을 받아쓰기보다는 어설프더라도 자신이 직접 만든 교육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 또한 이들이 다양한 교육 영상 콘텐츠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직접 만드는 시도를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채널을 이제 운영해 봐야겠다 하고 생각한 계기는 아, 수업 때문이었는데요. ... (중략) ...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담은 영상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 (중략) ...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전문적인 내용들은 외국 영상들이 참 많고 애들이 영어도 못 알아듣거니와 그리고 제가 딱 보여주고 싶은 그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유튜브에 제가 쓸 영상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교사 B의 인터뷰 중]

교사로서 뭔가 다른 영상을 가져와서 보여줬을 때랑 내가 만들어서 보여줬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교사로서 자격자심도 살짝 느껴지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이 만든 것을 내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저거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라고 물어보거나 아님 ‘저거 선생님 손이에요?’라고 물어볼 때 그때 살짝 조금 부끄러운 감도 들었거든요. 그런 감정에서도 많은 의지를 심어준 것 같아요. [교사 E의 인터뷰 중]

저는 실 새 없이 덕질을 하는 스타일인데...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항상 그런 활동을 할 때 저는 남이 주는 거를 받아먹기보다는 제가 만드는

스타일이어라고요. [교사 C의 인터뷰 중]

이처럼 자신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만들려는 교사들의 노력에는 자신만의 고유함과 독특성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아래의 C, D, E교사의 언급은 이들에게 유튜브라는 공간은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는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표출할 수 있는 창구로서 인식했음을 잘 보여준다.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교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갈망은 최근 90년대생, 혹은 밀레니얼 세대의 교사가 나타내는 대표적인 특성으로도 알려져 왔다(Park & Park, 2022). 이와 같은 특성은 밀레니얼 세대이자 동시에 정교사로 임용된 지 4년 미만인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임용이 된 이후 오래 지나지 않아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교육활동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D 교사의 경우 교사로서의 진로가 결정된 이후, 교사라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일종의 과학 커뮤니티 이터로서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하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

교사가 막상 되고 나니까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끝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뭔가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뭔가 과학을 더 좋아하고 즐기게 되고 이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쪽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교사 D의 인터뷰 중]

점점 사회가 1인 미디어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기 PR하는 시대가 더 다가온 느낌. 그래서 다들 이제 좀 뭔가를 한 분야를 파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인식들이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나는 교육 교직에 있는데 나는 뭘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일단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었습니다. [교사 C의 인터뷰 중]

저는 교실과는 조금 또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실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유튜브에서 좀 많이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서는 되게 조금 뭔가 한정적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다른 해소 창구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교사 E의 인터뷰 중]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응답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유튜브 공간이 자신이 꿈꾸던 ‘더 나은’ 혹은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른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교사 D의 경우는 막상 교사가 되고 나서의 생활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루틴을 형성해 가면서 자신의 더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했고, 소위 말하는 꿈 너머의 꿈을 이야기하였다. 교사 D에게 유튜브 공간은 새로운 도전을 가능케 하는 무한히 열린 도전의 공간이었으며 교사 B, C, E 역시 단순히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비자(生費者)로서의 교사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공간을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여기고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이 느끼고 경험한

2) 생비자(生費者)는 프로슈머(prosumer)라고도 칭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생산 소비자 또는 참여형 소비자라고도 부르며,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튜브 공간의 면모는 푸코가 제시하는 헤테로토피아의 모습과 닮은 면들이 엿보이는데, 실제로 헤테로토피아는 주체의 판타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도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이 가능한 실재(實在) 공간 - 바로 그것이다. 헤테로토피아는 그 어느 공간보다 주체가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이다(Kim, 2007).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진짜 ‘나’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주체가 바라는 ‘나’로 지내볼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과학교사들은 진정한 자신만의 모습을 찾기를 원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자신이 발현될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원하고 있었다. 이때 이미 익숙해진 학교나 교실이라는 공간과 연결되어 중첩되면서도 전혀 다른 공간인 유튜브는 그들에게 자신만의 무언가를 발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실과 맞닿은 대안공간인 ‘헤테로토피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일상을 탈출하여 일종의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교실에서의 한정적인 표현을 넘어서서 해소 창구 구실을 유튜브가 해주었다는 교사 E의 언급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헤테로토피아는 일탈의 장소이며, 이러한 일탈을 통하여 주체에게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공간이다. 이때 주체는 이러한 판타지의 실현과정에서 ‘사적 자유’를 느끼면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낀다(Foucault, 2014a; Sung & Yi, 2021).

2. 확장된 교실 공간으로서의 유튜브

참여자들은 자신이 제작한 교육 영상을 LM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즉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만 올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 유튜브를 활용하였다. 이들은 왜 공개된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교육콘텐츠를 공유했을까?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단순한 영상의 저장이나 처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유튜브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프라인 교실 속에서 마주하는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말로 설명해 주면은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1인 1기기 환경에서 영상을 틀어주면 그 영상을 봐줘요. 그 영상을 보면서 활동지예다가 뭔가를 쓰는 장면을 한번 보니까,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사 A의 인터뷰 중]

2019년 당시에는 LMS라는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학생들이 맨날 이제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누군가는 되게 많이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다면? 그럼 내가 유튜브로 들어가 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교사 A의 인터뷰 중]

영상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현재 학생들에게 친숙한 정보 전달 방식이며, 유튜브는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얻는 익숙한 공간이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오프라인 교실에서의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학생들이 익숙한 공간인 유튜브에서 익숙한 방식인 영상 시청으로라도 학습을 하기를 원했다. 실제로 오프라인 교실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학생들이 자신이 직접 만든 영상을 보며 학습하는 모습은 교사들이 계속 유튜브에 과학 관련 학습 영상을 올리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제가 수업에 사용할 영상을 올려두고자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준히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찍어 올리는 데에는 유인 요소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 고등학생들이라도 아직 애들은 애들인지만, 본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문화에 어른인 선생님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행동하고 단시간에 래포가 형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 까딱하는 인사도 하지 않던 학생이 선생님 유튜브 하나며 요새 유행하는 무슨 춤을 취달라 노래를 불러달라는 등 ... 아이들이 저와 제 유튜브에 대한 흥미가 저절로 생겼으니 수업 시간에 눈 뜬 상태로 있게 만드는 것과 나아가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편했습니다. [교사 B의 사전 서면 인터뷰 중]

어쨌든 학생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유튜브 영상도 친구들이 소스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에 오류가 있으면 ‘선생님 얼굴 창백하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간 썸네일 아세요? ... 유튜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올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소스를 줘요. [교사 C의 인터뷰 중]

교사가 유튜브 활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교사의 관계는 개선되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공간인 유튜브에 교사가 출현하는 것에 대해 신기해하고, 더욱 친밀감을 느꼈다. 또한 영상 속 익숙한 학교나 교실의 공간, 교사의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해 반가워했다. 영상의 공유는 학생뿐 아니라 대중을 상대로 하지만, 이를 통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주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영상들은 교실 속 학생들과 소통하는 확장된 교실 공간과도 같았다(Han, 2009). 이러한 변화는 Han(2009)이 교실공간 메타포의 유형과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삶의 공간으로서의 교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Han(2009)에 의하면 교실공간을 바라보는 은유적 관점은 다양하며, 시대에 따라 달라져왔는데 ‘작업장으로서의 교실’, ‘연극 무대로서의 교실’, 그리고 ‘삶의 공간으로서의 교실’이라는 세 가지의 메타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교실 내의 교육적 상호작용의 본질, 교실 공간의 폐쇄성 및 개방성 여부, 교사와 학생의 역할 등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며 외부세계와 철저히 폐쇄된 독립공간인 ‘작업장으로서의 교실’에서는 전달자로서의 교사와 수동적 학습자로서의 학생이 일방향적으로 만나는 데 비하여 ‘삶의 공간으로서의 교실’에 이르러서는 교실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확장성을 지니며 이때 교사와 학생은 모두 서로에게 의미주체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과학교사들은 유튜브 활동을 통하여 전통적 교실을 넘어서는 제3공간이라는 혼성적 공간을 창출하고 교실 공간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혼성적 제3공간으로 확장된 유연한 교실은 끊임 없이 ‘다른’ 무언가와 마주하고 ‘타자’를 경험하는 좋은 교육공간이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불안과 긴장을 유발하는 공간이다. Gutiérrez & Rymes(1995)는 이러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경계 지점을 하나의 잠재적 소통지대로 간주하고 제3지대로 명명한 바 있다. 제3지대는 현실 세계 속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이상적 공간이며, 타자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場)이라는 차원이라는 측면에서 교역지대(trading zone)(Collins, Evans, & Gorman, 2007; Galison, 1997; Lee, Lee, & Ha, 2013)나 헤테로토피아와 닮아있다(Foucault, 2014a; Jang, & Han, 2017). 확장된 공간 속에서 주체들은 약간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불안

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소통과 이해가 이루어지고 중국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Han, 2009).

3. 교실의 장벽 너머로 확장된 관계망

참여자들이 제작하고 공유한 영상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참여자들이 유튜버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는 직접 학교에서 마주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지 못하는 다른 학교의 학생이나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의 영상을 본 뒤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나 교사가 직접 댓글을 달거나 메일을 보내는 등 기존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방식의 새로운 사회적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놓으니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들보다는 차라리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교사 A의 인터뷰 중]

구독자가 점점 늘고하니까 이제 다른 학교 학생도 제 메일에 질문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오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도 영상을 수업 때 썼는데 너무 잘 썼다 감사하다 그런 연락도 오고.. [교사 B의 인터뷰 중]

이들의 유튜버 활동은 이들의 교육활동에 관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A 교사의 경우 자신이 만든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다른 교사나 학부모와도 적극적으로 교류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는 자신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개하는 일종의 온라인 공개수업 영상을 공유하며 학부모들이 교실의 수업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A교사의 노력은 수업의 장벽을 허물면서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이 수업에 대해 접근 가능케 하며, 이를 토대로 교육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만들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업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업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학교 속 교실 공간은 특정 수업을 해당 시간에만 실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존재한다. 이것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현실 세계가 내포하고 있는 제약조건으로 이런 공간 속에서 교사는 자신 담당하는 곳의 학생들과의 관계망 속에만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여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여도 대개는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시간이 허락되는 소수에 국한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유튜브 공간에서는 이와 같은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는 그 수업을 경험할 수 없는 학생들이지만, 가르치지도 않는 학교 학생들도 수업을 경험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이 내 수업을 활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것은 푸코가 언급한 헤테로토피아의 여섯 가지 원리 중 네 번째 원리와 유사하며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도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헤테로토피아는 일상 공간 혹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형태로 흐르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시간이 영원히 축적되어 주체가 그 공간에 들어서면 켜켜이 쌓인 서로 다른 시간을 자기식대로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헤테로토피아는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한 공간으로 자리하며, 그곳에 진입하는 순간 일상과는 단절이 이루어지는 이질적인 공간이다(Foucault, 2014a, 2014b; Lee, 2014).

본디 현실 세계였다면 교육과정의 순서에 의한 시간의 흐름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미 지나간 수업을 다른 시간-다른 공간 속의 누군가가 학습하거나 참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공간 속에서 어떻게 발을 들이느냐에 따라 100년 전으로도 기원전으로도 오가며 시간의 순방향 진행도, 역방향 진행도 가능한 박물관처럼, 유튜브 채널 역시 해당 영상이 촬영된 시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효과를 통해 다양한 시간이 입체적으로 켜켜이 쌓여 서로 다르게 흐르는 현실과 무관한 ‘다른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공개 수업이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의 접근이 어려웠던데 반해 A교사의 시도는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에 대한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수업에 접근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A교사가 제작한 콘텐츠는 더욱 넓은 관계망 속에서 누구나 시간의 제약 없이 접근 가능한 교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공개수업에 대한 질문) 학부모님들한테 저 영상을 보냈어요. 학부모님들이 맞벌이 많이 하시고 애들이 맨날 집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학생들이랑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학교에서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좀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서 만들어서 보낸 것도 있고. 좀 다양한 이유에서 만들었습니다. [교사 A의 인터뷰 중]

저거(온라인 공개수업)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욕심이 없었나 임용 시험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 감독관님한테 저는 대국민 공개 수업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 속에 품고 있던 계획이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학생들이랑 상호작용하고 이런거를 좀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서 피드백을 한번 얻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한번 여쭙보고 아니라면 왜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좋은 수업 할 수 있는지.. [교사 A의 인터뷰 중]

참여자들이 과학교육 관련 콘텐츠 제작에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주변 교사들에게 알려지면서, 이들은 온라인 교육의 선도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특히 COVID-19로 온라인 수업 및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미디어 콘텐츠 활용 수업의 요구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주목받고 이에 대해 공유하게 되는 기회 또한 덩달아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유튜브 활동 이후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 단위에서 교사 대상 블렌디드 러닝,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한 연수의 강사나 온라인 수업 교사 지원단으로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기존에 접촉하지 못했던 많은 교사들과 새롭게 교류하기도 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초등교사들의 정체성에 관해 연구한 Choi, Kim, & Lee(2021)에 따르면 교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며 “학교 안의 고립 대신 학교 밖에서의 함께”의 상태를 이루게 된다. 이 연구에 참여한 중등 과학 교사 또한 학교 밖의 온-오프라인 공간을 오가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었다. 푸코는 공간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결국 우리 시대는 공간의 시대이며, 공간에 대한 문제는 결국 배치와 네트워킹의 문제임을 천명한 바 있다(Foucault, 2014a; Shim, 2022; Wardak et al., 2022). 이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이 일상 공간에의 맞닿음, 그리고 중첩을 통해 단순한 공간의 확장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주체가 공간과 네트워킹 하고 그 공간에 거함으로써 이전에는 경험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관계맺기 방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 준다(Kim, 2007). 이러한 경험들은 헤테로토피아 공간의 경험 이후 주체가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관계망이 확장되거나 혹은 다변화되는 데에 일조하게 된다(Shim, 2022).

외부활동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다 보니까 이제 ‘너 영상 만들던데 혹시 우리 학교에서 영상 연수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제의가 와요. [교사 C의 인터뷰 중]

저기 충청도에서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계셔가지고 거기서 또 연수자가 또 필요로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알게 알게 돼서 저도 그쪽에 가서 연수를 좀 도와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수요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교사 E의 인터뷰 중]

한편,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수업 콘텐츠에 대하여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익명 사람들과는 댓글을 통해 의사소통하게 되는데, 일부 댓글은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일부는 악플, 즉 부정적인 비난의 의미를 담은 반응도 있다. 이와 같은 반응들을 마주하고 난 뒤의 감정적 반응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참여자들이 새롭게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단원이 진화론이다. 그러면 리플보다 악플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것도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막 답답한 그런 거는 좀 있더라고요 [교사 A의 인터뷰 중]

저도 드러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사실 영상 올렸을 때 그런 좀 댓글이 달릴 때는 사실 거부감이 먼저 들었죠.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댓글을 다는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안좋은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나한테는 뭔가 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는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나한테 피드백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점차 올리면서 그 부분은 개선이 되었던 것 같아요. [교사 E의 인터뷰 중]

4. 인정욕구의 충족과 유튜버로서의 정체성 경험

보다 확장된 관계망 속 긍정적 평가를 경험한 참여자들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콘텐츠로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느끼며, 참여자들은 유튜브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만족됨을 경험했다.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욕구를 솔직하게 직면하고 표현했으며 이와 같은 욕구는 이들이 유튜버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더 성장시켜야지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관중이라고 하죠. 그러가지고 네,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어떤 일종의 사회적 약간 인정의 요구가 좀 저는 심한 것 같아요. [교사 B의 인터뷰 중]

순수하게 정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제 비공개 영상으로 올려 놓고 아이들 수업할 때만 썼겠죠. 근데 제가 관심 받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칭찬에 중독된 거죠. 지금 이걸하니깐 사람들이 좋아하구나. 그런 생각도 있었죠. [교사 B의 인터뷰 중]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영상에 막 좋습니다라고 리플 달리고 막 점점 더 조회수 늘어나고 이러는게 참 계속 스스로 만족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더 버는 것보다 쓰는게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 만족감이 진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사 A의 인터뷰 중]

진짜 보는 사람이 있고 나를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또 그럼 힘내서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되고.. [교사 D의 인터뷰 중]

위에서도 언급했듯, 참여자들은 영상을 올리며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경험을 했고 스스로 다른 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자각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며 타인에게 긍정적 피드백을 받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교사 B의 언급처럼 참여자 중 일부는 스스로 자신이 관심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이며, 이와 같은 개인적 특성은 공개적으로 교육콘텐츠를 올리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음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유튜버 활동을 통한 이들의 사회적 인정 욕구의 충족은 ‘교사’로서의 정체성 뿐 아니라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는데 있어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만의 고유한 활동과 이에 대하여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타인의 계속된 인정과 존중은 이들이 유튜버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게도 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으로 유튜버로서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하는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다양한 자신만의 콘텐츠를 활동적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며 만족감을 얻는 반복적 경험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유튜버’ 혹은 ‘크리에이터’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내 채널이 생기면 콘텐츠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다른 그냥 일반 유튜브들도 영상이 실새 없이 올라오잖아요. 콘텐츠에 대해 고민하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내가 유튜버 OOOO(유튜브에서의 활동명)으로서 그 사람 다음 영상에서 뭐를 올려야 되지? 그럼 또 어떤 실험을 해야되지?’ 이런 고민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하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연수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제가 그런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교사 C의 인터뷰 중]

근데 계속하다 보니까 욕심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다른 것도 하고 싶고 뭔가 일상적인 것도 좀 올려보고 싶기도 하고, 학생들이랑 노는 것도 한번 올려보고 싶기도 하고. 최근에는 공연하는 것도 사실 올리기는 했어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뭔가 유튜버랑 내가 별개가 아닌... 진짜 내가 OOOO(유튜브에서의 활동명)이고 E이고 상관없이,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것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학생들과 공유하고, 일상 속에서도 공유하고... 그런 그럼 뭔가 하나의 장을 만드는 게 제 앞으로의 생각이 것 같아요. [교사 E의 인터뷰 중]

5. 전통적 교육 공간과 유튜브 공간 사이에서의 긴장

유튜버로서 개인의 고유함을 드러내며 동시에 다른 이들의 관심을 받는 교사의 모습은 기존의 전통적 교육공간에서 강조되던 교사상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학교-교실 공간에서 익숙했던 가치관이나 규범에 기반한 행동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활동과 맞지 않는 상황도 벌어진다.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고 혼란을 느끼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는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며, 많은 동영상들은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한 용도로 소비된다. 이로 인해 콘텐츠의 재미는 많은 사람들의 선택과 집중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종종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콘텐츠의 재미가 콘텐츠에서 전하고자 하는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과 상충되는 상황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영상 속 참여자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지점에서 시청자가 재능을 중도에 멈추는 현상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자들은 재미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하는지 내용의 깊이에 더 방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험을 겪었다.

확실히 중사자의 콘텐츠가 좀 더 전문적인 경향이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별로 전문적인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교사 D의 인터뷰 중]

노잼 포인트죠. ‘여기는 왜 갔는지 한번 네가 분석해봐라’라는 식으로 유튜브가 그 포인트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딱 누르면 장면이 떠오르는 장면이.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뒤로 가기를 눌렀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중이가 갑자기 등장하던지 갑자기 무언가를 쓰고 있다거나 제 목소리가 나온다 그럴 때 많이들 끄더라구요 [교사 B의 인터뷰 중]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기대하는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책임감 있고 품위 있는 모습은 교사-유튜버로서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또 다른 긴장감을 제공하기도 했다. 몇몇 참여자들은 동료 교사나 관리자로부터 유튜브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만큼 더욱 각별히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함을 주의받았다. 또한 2019년 교육부를 통해 안내된 교사의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Ministry of Education, 2019)³⁾ 등을 근거로 이들의 유튜브 활동에 관한 많은 부분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블로그, 온라인 카페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공간에서의 교사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저는 사실 블로그에서 이제 제 블로그를 보고서 좀 어떻게 검색해 가지고 들어와서 임용 준비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학교 현장 이야기를 제가

시시콜콜하게 올려 일기처럼 막 올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보고 많이 공감도 하고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려면 이제 검직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것을 검직 신청하면서 교장 선생님께 제 블로그를 오픈하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교사 C의 인터뷰 중]

이와 같은 상황은 그동안 학교와 교실 공간 속에서 우세했던 교사 관인 성직자이자 노동자의 교사관과 새로운 1인 미디어 세상에서의 유튜버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긴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제도적으로나 통념적으로 요구되어 온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이 존재해 왔으며(So & Park, 2020), 이와 같은 이상적인 교사상에 반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명시적-암묵적 규제가 가해지곤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참여자들은 현실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다양한 교사와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중 교사의 품위와는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모습들을 조심스럽게 영상 제작 중 제거하거나, 이미 올려진 영상을 다시 검토하여 비공개로 변환하는 등 유튜브 속 교사로서 자신의 모습을 조정해갔다.

학생들이 하는 수업이 그대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친구들의 사운드가 좀 욕설이나 나오면 안되는 표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거는 다 또 들어가기도 편집해야 되고. 저도 어쨌든 학생들처럼 하다 보면 이제 좀 격한 표현을 쓴다거나 하는데... 이거는 이게 선생님님 보통 저허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선생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에 좀 어긋난다 싶은 저의 자연 모습이 나올 때 그런 것들 이제 다 컷트하고 ... [교사 C의 인터뷰 중]

좀 예민하신 관리자분께서는 막 그런 조항들을 물어주세요. 공무원 품위 유지조항이 있으며 욕하면 안되고 뭐 그런게 있거든요. 최대한 ‘교사가 저래도 되냐’라는 말은 안 들을 정도로 네... 비속어는 쓰지 않는 그런 것들만. 이제 주의하고 있습니다 [교사 B의 인터뷰 중]

예를 들어서 유튜버 활동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주위에서 충고를 해요. 아무리 조금 잘해지고 높아져도 수익 창출은 하지 말아라 이런식. [교사 E의 인터뷰 중]

이와 같은 전통적 교실 공간과 유튜브라는 공간 사이에서의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참여자들은 학교 공간의 활동과 유튜브 공간에서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구분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많은 참여자들은 이들의 이와 같은 활동이 ‘취미’ 생활임을 분명히 하며 학교 공간에서의 생활과는 시공간적으로 명확하게 분리시키는 모습을 나타냈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세계에서 주체가 사회로부터 요구받는 다양한 규범과 질서들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사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일탈과 탈질서의 공간이기에, 일반적으로 헤테로토피아로 다뤄진 공간들은 언제나 전통적 생활세계 공간과의 긴장과 갈등을 빚어왔다(Foucault, 2014a; Kim, 2007). 헤테로토피아는 일상과 함께 존재하나 일상의 삶 밖에 존재할 때 그 의미가 발생된다(Sung & Yi, 2021). 아무리 좋은 헤테로토피아라도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그것이 일상을 침식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공간이 생활세계 혹은 현실 세계의 일상 공간으로 전도되는 아이러니는 경험하게 된다. 과거 인위적 공간보다 자연적 공간이 많았던 시절에는 자연적 공간이 일상의 생활공간으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반대로 도시화가 이루어진 이후 도시민들에게는 인위적 도시공간은 일상 공간으로 있는 그대로

3)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Ministry of Education, 2022)’으로 변경되어 시행되었다. 변경된 지침에서는 교원의 일상적인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참여 교사 C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블로그 활동의 경우 기존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에는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검직허가 대상이었지만, 변경된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활동 지침’에서는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로 제시되었으며, 최초 수익이 발생했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 검직허가를 신청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의 원시적 자연 공간은 오히려 일상을 벗어나는 공간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헤테로토피아는 주체가 일상과 비밀상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느끼면서 삶과 분리된 ‘다른 공간’으로 남겨둘 때 계속해서 헤테로토피아로 기능하게 된다(Kim, 2007). 이런 긴장 관계의 문제는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각자에게도 모두 발생하였다.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 올리고 하는 것을 ‘취미 생활로 생각한다’라는 교사 A의 응답이나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스스로 원칙을 정하고 생활한다는 교사 D의 이야기는 긴장과 갈등이 상존하는 헤테로토피아 공간 속에서 어떠한 삶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자칫하면 피안의 장소였던 헤테로토피아가 또 하나의 일상 공간으로 전락해 버리기에 십상이기 때문이다. 잠시 가서 머무는 주말농장은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지만, 귀농해버린 이에게 농장은 생활세계이며 일상 공간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장비 사고 이러는 거는 이제 취미 생활이기도 하고요 ... (중략)
... 그렇죠. 제 취미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만드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학교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교사 A의 인터뷰 중]

일단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학교에 있을 때는 되도록 유튜브 관련해서는 생각을 안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부분이 있고... 교사가 약간 이런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면 ...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무조건 애들 최소한 다 집에 보내고 나서 그런 연구를 하려고 원칙 규칙을 이제 정한 거죠. 제 나름대로의. [교사 D의 인터뷰 중]

6. 장인으로 거듭나기

자신의 교육콘텐츠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욱 콘텐츠에 대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일과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영상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부터 제작 및 편집까지 많은 과정에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다. 흥미로운 점은 참여자들의 노력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자발적인 행위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누가 시키지 않음에도 끊임없이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지난한 과정을 반복하며 자신의 일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며 또 즐기는 장인의 모습과 유사하다(Sennett, 2008). 이와 같은 장인정신이 발휘되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에게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은 고되지만 동시에 좋아서 하는 일이었다.

과학사 영상을 제작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왜냐하면 항상 칠판 앞에 서서 하는 수업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내가 딱 서가지고 뭐 그런거 없이 다다다다 계속 말을 해야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계속 자료 영상이 나와야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기획만 거의 한달 이상 어떤 카메라 구도를 이상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데만 또 수십 번의 촬영을 했다가 지웠다 했었고.. [교사 D의 인터뷰 중]

처음에는 1분짜리 영상 만드는데 편집만 한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1분짜리 영상 만들려면 의자에 앉아서 10시간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기획부터 해서. [교사 A의 인터뷰 중]

진짜 밤. 저는 이게 제가 좋아서 하는거니까. 한번 시작하면은 끝지를 못하거든요... 항상 저녁 먹고 시작을 하면 12시 넘어서 끝나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니까. 사실 제가 정말 다양한 것을 따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전부 하나하나 다 검토해야 하거든요. 그걸 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거를 컷을 따서 어느 장면을 어떤 순서로 배열을 해야 할지를 또 고민해야 하고 또 자막 입력도 진짜 힘들거든요. 자막 입력을 제일 오랜 시간하고... [교사 C의 인터뷰 중]

자신만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은 교실 속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기반한 수업에 비해 높은 자율성을 지닌다. 교사들은 스스로 콘텐츠에 담기는 내용의 많은 부분을 직접 구상하고 이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자신의 교육 콘텐츠 속 담겨 있는 과학적 지식의 표현과 설명 방식은 이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다. 많은 참여자들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적절한 예시와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전할지 고민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학과 수업에 대한 공부와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교사 전문성이 교사 개인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주체적인 판단과 자기주도적 활동에 기반해 길러진다는 점(Jung, 2017)을 고려할 때, 이들이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주체적 판단과 학습은 이들의 교사전문성은 크게 신장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참여자들은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끊임없는 고민과 학습이 이들이 가르치는 학교 교실 속 수업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졌음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다양한 교실 내 수업상황에서 아이디어와 설명을 왕성하게 떠올리게 되는 등 과학교수 및 과학 미디어 제작 관련 전문성 향상을 경험했다. 이는 유튜브로서 교육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이 실제 교실의 과학 수업에도 긍정적인 선순환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사 개인의 독특한 활동과 경험의 추구가 학습지도와 학급경영에도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Jung, 2017).

어쨌든 영상은 공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는 어떤 반박이 들어와도 내가 반박할 수 있어’라고 하는 주제들로만 일단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게 다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좀 확실한 것들만 일단 하려고 하고 있고, 올리기 전에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죠. [교사 C의 인터뷰 중]

기존 수업을 할 때는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에서 있는 내용들 위주로만 조금 다뤘었다면, 일단은 지금 계속 수업 연구를 하면서 실생활의 예시가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도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찾아 보는 역량이 강화되었죠 [교사 E의 인터뷰 중]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유튜브를 시작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정도로 정말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걸 다 떠나서 제 수업이 풍부해지는게 제가 느껴지는 ... [교사 D의 인터뷰 중]

참여자들에게 유튜브 공간은 다른 ‘나(self)’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었다. 이들은 익숙해진 삶의 지루함을 깨고 더 나은 나로 나아가고자 했으며, 이 과정에서 온전히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모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들이 접한 새로운 공간이 바로 유튜브였던 것이다. Kim(2017)은 최근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라는 공간개념을 ‘자기 배려 주체’의 공간으로 재해석하여 의미를 확장한 바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개별 주체가 평소 품고 있었으나 일상 공간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웠던 판타지 등을 실현시켜 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상의 바깥에 존재하는 원시적 자연 공간 같은 곳이나 혹은 비현실적인 사치의 공간이 꾸며진 크루즈 여행선 내부 등은 일상 공간의 규범으로부터 ‘자유’와 ‘일탈’을 통해 ‘쾌락’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숙해져 가고 매너리즘에 빠져갈 수 있는 삶에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활력소가 되어주듯이, 비슷하게 느껴지는 교직 생활의 매너리즘과 지루함에 대한 새로운 도전 의지를 만들어 줄 새로운 공간이 이들에게는 유튜브 공간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은 이들에게 철저하게 ‘자신다운’ 모습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일종의 ‘다른 세계’ 혹은 ‘이형(異形) 공간’이었던 셈이다. 특히나 이러한 헤테로토피아 속 공간을 경험한 주체는 단순히 쾌락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된다(Foucault, 2014a; Kim, 2007).

헤테로토피아는 소위 정상성(正常性, Normality)을 벗어난 ‘타자들의 공간’으로 누구라도 타자가 되는 경험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일상 공간에서의 나를 성찰하게 만든다(Jang & Han, 2017). 또한 낯선 여행지에서는 누구나 소외된 타자로서의 외로움을 느낀다. 따라서 헤테로토피아는 공간을 경험하는 주체가 타자화를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하다(Kong & Kim, 2021). 탑 속에서는 탑의 높이를 알 수 없으며, 밖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그 탑의 높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고사에서 처럼 ‘다른 공간’인 헤테로토피아, 즉 유튜브 공간과 맞닿은 교사들은 새로운 경험이 유발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기배려와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교사들의 이러한 성찰과 성장은 비단 가상공간인 유튜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선행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는 낯선 이국에서의 ‘해외교육봉사’와 같은 경우도 ‘타자들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본다는 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Han et al., 2019, 2020; Kim & Yim, 2015).

교사들에게 유튜브 공간은 교실 공간에 비해 낯설고 다른 공간이다. 교사는 아직은 이 공간의 주인인 ‘유튜버’는 아니다. 따라서 이 ‘다른 공간’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정상성을 벗어난 이방인인 ‘타자(others)’가 된다. 우리는 비록 어설픈 흉내 내기에 지나지 않지만, 타자가 되어보는 체험들 - 예를 들어 장애체험, 임산부 체험, 노인 체험 등 - 을 통하여 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경험을 한다. 비록 잠시 일지라도 타자들의 공간인 헤테로토피아 경험을 통해 ‘나’를 그리고 ‘일상’을 다른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던 이들에게는 성장이라는 이름의 달라짐이 따라왔을 것이다.

7. ‘교사-유튜버’로서 자신만의 방향 찾기

사회학자 Sennett(2010)에 따르면, 장인은 자신의 반복적 일을 통해 개인적인 것으로부터 사회적 것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깊은 윤리관을 지니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참여자들이 장인정신을 발휘하며 교사-유튜버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실제 학교와 유튜브 공간을 반복적으로 오가며, 보다 넓은 시선으로 교육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통찰을 얻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특히 교육 콘텐츠의 생산자로서 다른 교육콘텐츠의 제작과 소비에 관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며 개인적 깨달음을 얻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와 같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유튜버 활동을 하며 참여자들은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한 한계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였는데, 대표적으로 교사 C은 단순 현상 관찰이 이루어져 영상화하기 쉬운 실험과 영상으로는 담을 수 없는 복잡성이 높은 탐구가 구별됨을 인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참여자들은 실험을 거의 영상에서 다루지 않기도 했고, 일부 참여자들은 시각 혹은 청각적인 관찰 가능한 실험만을 제한하여 다루기도 했다.

영상을 안 찍는 실험이 사실은 훨씬 더 재미있는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영상을 촬영하려면 제가 학생들한테 충분히 다 케어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난이도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진행이 불가능하고 진짜 그냥 단순히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실험 정도만 이제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교사 C의 인터뷰 중]

실험은 저랑 이제 같이 느끼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는 그 손을 움직여 봐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뭔가 터지면 터지는 거 진동 느껴봐야 되고 이런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현미경을 직접 보더라도 대물렌즈 돌리는 걸 해봐야 되고 이거를 초점 맞추는 그 감각을 느껴봐야 되고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 A의 인터뷰 중]

또한 연구 참여자 중에는 자신이 통찰한 바를 바탕으로 유튜브 활동의 적용방향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A교사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는 자신의 수업에 한해서 가장 적합한 영상이라는 점을 자각하면서, 좋은 콘텐츠를 많은 교사들에게 보급하는 것보다 개별 교사들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훨씬 더 큰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교사-유튜버’로서 개별 과학수업의 고유한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교육 콘텐츠, 더 나아가 유튜브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 통찰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처음에 사실 유튜브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저는 여기도 올려놓으면 선생님들이 좀 영상을 이제 많이 쓰실 줄 알았거든요. 수업에. 그런데 이게 영상을 여기도 올리면은 제 수업밖에 쓸 수 없는 영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수업에 적합한 영상은 그 선생님이 만드시는 영상이니까. 제가 아무리 만들어도 이거는 제 수업에만 적합한 영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한계를 많이 느껴가지고 그냥 어떤 선생님들이 영상 만들고 싶다 하시면 좀 그런 방법을 알려드려요. [교사 A의 인터뷰 중]

과학교육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거는 사실 이렇게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놓은 영상이 아니라 그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는 기반이거든요. 저는 이게 모션 그래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영상을 만드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학생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주고 싶어서거든요. ... 그거를 설명하는 방법이 다 다르실 텐데 그걸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만드는 거란 말이지요. [교사 A의 인터뷰 중]

이와 같은 깨달음을 토대로 참여자들은 교사-유튜버로서 자신의 콘텐츠 제작에 관한 방향이나 기준, 원칙이 더욱 명료해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는 재미의 자극을 소비하려는 많은 이들이 몰리는 속성을 고려할 때, 참여자들 또한 유행하는 소재와 자극적인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효과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위에서 살펴봤듯 조회 수, 구독자 수, 댓글 등을 통한 대중의 긍정적 반응에 큰 동기부여를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표면적인 재미만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겠다는 방향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도 했다.

이게 유튜브니까. 사실 ‘공부해야지’해서 들어온 사람보다는 재미로 여가 시간을 소비하려는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의도라고 해야 하나요. 제 의도와 그 사람들의 목적 차이의 그런 괴리 때문에 발생한 문제지... 아예 재미를 추구해버리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이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교사 B의 인터뷰 중]

물론 브이로그 찍고 이러면 구독자가 팍 올라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올리면 구독자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방향성에 안 맞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해서 생긴 구독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저한테. 왜냐하면 그렇게 생긴 구독자들이 내가 과연 우주 영상을 올렸을 때 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예요. 안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구독자는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죠. [교사 D의 인터뷰 중]

헤테로토피아는 현실과 잇닿아 중첩된 묘한 공간이라는 데에 매력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헤테로토피아는 이상을 투영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대항과 반항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Foucault, 2014a, 2009; Lee, 2014; Shim, 2022). 헤테로토피아 자체가 일종의 저항과 탈질서의 공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자체의 특성보다는 그 공간을 점유하는 삶의 주체들의 역사성을 통해 파악해야 한다(Kim, 2007; Sung & Yi, 2021). 이 연구의 참여자인 과학교사들 역시 전통적 교육공간인 교실이라는 일상 공간 속을 점유하는 삶 속에서 형성하고 있는 ‘과학교사’라는 하나의 정체성만을 형성하며 살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튜브 공간이라는 헤테로토피아를 만나게 되면서 소박하게나마 ‘유튜버’라는 정체성을 경험한다. 유튜브 공간 속에서 ‘교사’라는 정체성은 오히려 어색하고 낯선 소외된 정체성이 되며, 이 공간 속에서 교사로 존재하는 것은 낯선 여행지 공간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부유하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상황은 이들에게 헤테로토피아인 유튜브 공간 속에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바라보던 교사라는 정체성을 타자화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성찰할 기회를 얻게 해주었다. 더불어 일상 공간을 지배하던 규범을 넘어서 유튜브 공간을 체험한 과학교사들은 헤테로토피아의 점유 과정에서 ‘유튜버’라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 했을 낯선 정체성을 느껴보게 되는 것이다. ‘다른 공간’에서 자신의 주 정체성이던 교사를 타자화시켜 바라보게 되고, 되돌아온 자신의 일상 공간 속에서는 오히려 조금 전 경험한 유튜버를 타자화시켜 바라보면서 ‘교사-유튜버’라는 새로운 주체를 구성해 나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푸코는 「다른 공간들(Des Espace Autres; Of other space)」 강연에서 거울의 비유를 들고 있다(Foucault, 2014a).

“요컨대 거울, 그것은 유토피아이다. 장소없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거울 안에서 나는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본다. [거울의] 표면 뒤에 가상적으로 열리는 비실제적 공간에서, 나는 저편 내가 없는 곳에 있다. 스스로에게 나 자신의 가시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그림자, 그것은 내가 부재하는 곳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거울의 유토피아. 하지만 거울

이 실제로 존재하는 한, 그리고 내가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 그것이 일종의 재귀 효과를 지니는 한 그것은 헤테로토피아이다. 바로 거울에서부터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내가 나를 거기서 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내게로 드리워진 이 시선에서부터 거울의 반대편에 속하는 이 가상공간의 안쪽에서부터 나는 나에게로 돌아오고, 눈을 나 자신에게 다시 옮기기 시작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자신을 다시 구성하기 시작한다. 거울은 헤테로토피아처럼 작동한다.(Foucault, 2014a)”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잇닿은 지점이 없는 유토피아와 달리 돌아올 현실이 있는 현실세계와 맞닿은 반(反)세계이다. 따라서 특유의 과도기적 장소라는 면모가 발견된다. 푸코가 들고 있는 거울의 비유는 헤테로토피아 자체가 매우 모순적인 공간이지만 그러면서도 현실의 일상공간과 마주하고 있는 중첩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언급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순성으로 인해 주체에게 현실 세계로부터의 완전한 탈주나 도피의 공간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헤테로토피아는 단순한 삶의 배타적 공간이 아니다(Lee, 2014; Lee, 2006). 인간은 누구라도 헤테로토피아 속에서 머무르게 되는 점유의 시간 동안 자신의 일상 공간으로의 복귀를 준비해야 하며, 헤테로토피아는 일상의 부적응자를 위한 피난처가 아니다. 오히려 헤테로토피아는 주체가 언젠가는 반드시 일상 공간으로 되돌아올 수 보장할 수 있어서 존재하는 ‘다른’ 공간이며, ‘주체의 재형성(reforming)’을 반복하도록 돕는 역할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Foucault, 2014a; Kim, 2007). 결국 연구에 참여한 과학교사들은 교실 공간과 유튜브 공간을 오가면서 주체의 재형성을 시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교사-유튜버’라는 자신만의 방향을 찾아내게 된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5인의 유튜버 활동을 하는 현직 과학교사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교사로서 유튜버 활동을 하는 상황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공간에 진출한 교사들의 정체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교사로서 자신의 고유함과 독창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튜브에 공개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안팎의 학생 및 교사들과의 긍정적 관계망이 형성되었고, 확장된 관계망 속에서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며 사회적 인정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교사들은 유튜버라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기존의 학교와 교실에서 요구되는 가치와 규범과 유튜버라는 공간에서의 가치가 서로 다른 충돌하는 지점에서 여러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콘텐츠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며 콘텐츠를 제작하는 장인정신을 발휘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깨달음을 토대로 자신만의 과학 교육 콘텐츠의 기준과 방향을 정교화해 나아가는 ‘교사-유튜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내었다.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과학교사들이 과학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 활동은 과학교육의 공간의 확장 및 발전에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유튜버’라는 기준에 없었던 교사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전통적 과학교육 공간으로 대표되는 학교 속 교실과

유튜버라는 새로운 과학교육의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정체성으로서 두 공간을 있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전통적인 학교 안 교실을 넘어 다양한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으며, 유튜버라는 미디어 공간 또한 다양한 학습과 교육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미디어 공간은 개개인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또는 교실로 대표되는 전통적 교육공간이 오랫동안 나타내 온 시스템과 규범 및 가치는 유튜버를 비롯한 미디어 공간이 지니는 그것과 큰 차이가 있기에, 교육활동과 분리되어야 할 공간 혹은 더 나아가 교육 활동을 참여를 방해하는 공간으로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전통적인 교육 공간과 미디어 공간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교육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두 공간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유튜버라는 미디어를 과학교육의 공간으로서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유튜브 속에서는 누구나 교육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으나, 기존의 교육을 담당했던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교육활동은 더욱 양질의 교육콘텐츠 제작과 공유를 이끌며 전반적인 과학문화의 주체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의 교육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교육활동이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과학교육의 질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 결과 교사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교육활동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접근성이 높은 유튜버를 활용하였다. 유튜버라는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이들은 자신만의 교육콘텐츠를 만들며 교사 전문성을 주체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이는 선순환적으로 전통적인 교육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자신만의 고유하고 창의적인 과학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은 장인정신을 발휘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디지털 역량뿐만 아니라 교사 공동체 활동 등 새로운 교육 경험, 과학교사로서 요구되는 과학지식과 과학교수내용지식(PCK)에 대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결국 유튜버라는 새로운 교육공간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수업'에 대한 고민과 소속된 학교와 교실의 수업에 대한 고민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치열한 고민과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이들의 수업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두 공간을 오가는 이들에게 교실 공간 및 유튜버라는 미디어 공간 각각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교실 내의 과학수업과 미디어 속에서의 콘텐츠 제작의 방향을 정교화하며 자신만의 전문성을 기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들의 교실 밖 다양한 경험이 결코 전통적 교실 내의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교사의 정규교과교육 외의 다양한 배움 혹은 실천의 경험이 수업에 주는 긍정적 의미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Jung, 2017; Jung, Shin & Lee, 2019; Choi *et al.*, 2021).

이 연구에서는 교사 사회적 인정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다양한 개인적 욕구로부터 시작된 이들의 개인적 경험이 이들의 정체성을 교사-유튜버, 교육-인플루언서 혹은 과학교사-과학커뮤니케이터와 같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새롭게 생성된 이와 같은 정체성은 이들의 다양한 '교육적 정체성'의 한 단면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들의 교실 밖의 공간에서 다양한 개인적 자아실현과 인정욕구를 실현하고자 자발적으로 시도하는 개인적-사회적 경험은 단순히 교육적 업무에 소홀한 행동으로만 치부할 수 없

으며, 과학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교사전문성 향상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Jung *et al.*, 2019). 특히 이 연구에서 보여준 과학교사들의 정체성 다양화는 이들의 전문성 신장을 이끄는 데 의미있는 변화일 수 있다. 기존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체성 혹은 자아(self)는 통상적인 교육제도 하에서 규범화된 교사의 정체성에 한정되어 강조되어 왔다(So & Choi, 2019). 과학교사 또한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과학교육제도 하에서 규범화된 교육적 정체성 혹은 과학적 정체성 등이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즉 공립학교 과학교사로서 기대되는 과학교사-다음이라는 이미지에 기반한 정체성이 강조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같은 제도적 범주 하에 있는 교사라도 이들의 능동적 행위와 경험에 따라 그 안에서의 정체성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재구성되며 변화할 수 있으며, 한 개인 또한 정체성의 변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점(So & Choi, 2019; Ko, 2003)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과학교사의 다양한 개인적 욕구와 개인적-사회적 경험에 기반한 다양성 정체성 형성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교사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다채로운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학교육의 잠재력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튜버'라는 특정한 미디어 공간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앞으로 사회적 변화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육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가치가 혼재된 헤테로토피아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시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사람들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공간 속에 교사들이 들어갈 경우 이들은 또다시 새롭게 정체성을 재구성하며 창의적인 과학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잠재력을 고려할 때, 추후 교실 밖 과학교사들의 다양한 교육 관련 활동에 대한 무조건적 부정, 제약 혹은 외면보다는 긍정적 관심과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특정 '공간'에 연결되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인간의 삶의 어느 순간도 그것이 물리적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든, 가상의 공간이든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속해있고 공간과 하나가 된 연결과 접촉을 통하여 자기(self)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거나 혹은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때 공간은 주체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되며 자신만의 환경세계가 된다. 연구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유튜브 공간은 교사들에게 사적 자유를 경험하는 어느 정도의 탈질서적 공간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 일탈과 도피의 공간이 아닌 일상 공간과의 반복적인 오고감을 통해 주체를 재형성하는 성장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새로이 다가온 '다른 공간'인 유튜브는 교실이라는 전통적 일상 공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고 교사 개인의 즐거움과 판타지를 극대화해주는 단순한 대안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공간과의 연결과 중첩을 통해 그들의 삶 속에 여실히 자리하고 있는 하나의 헤테로토피아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과학교사들에게 유튜브 공간은 분명 '다른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왕복 티켓을 든 여행자가 마주한 여행지 공간처럼 '돌아오기 위한 공간'인 셈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유튜브는 과학교사들이 자신들만의 이상을 실현하고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며, 이 공간 내에서의 행동을 일상 공간 속의 규범과

찾대로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토대로 한 후속연구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중등과학교사 다섯 명의 고유한 유튜브 경험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탐색한 다중 사례연구로서, 개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변화와 그 차이를 세밀하게 기술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추후 과학교사 유튜브로서 한 개인이 어떠한 경험과 변화를 했는지 보다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단독 사례연구나 내러티브 연구, 생애사 연구방법 등을 활용한 연구가 후속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수행된 연구이기에, 이들의 학교 혹은 교실 공간 내에서의 실질적 교육활동이나 학생 입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충분치 않다. 때문에 교사-유튜버로서 교실과 유튜브 공간 사이를 오가는 과학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다면적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유튜버의 활동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인식, 그리고 이들의 실제 교실 내 교육 경험 등 교실 공간과 유튜브 공간 사이에서의 연결 및 상호작용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교육활동을 하는 중등과학 교사들에 대한 질적사례연구이다. 특히 이 연구는 생활세계 혹은 현실공간의 규범과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상향이 반영되어 사적 자유나 일탈을 가능케 해주는 공간을 의미하는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사례를 해석하고자 했다. 연구에는 최근 자발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에 개인 채널을 개설하고, 과학 학습 관련 영상을 활발하게 올리는 현직 중등과학교사 5인이 참여했다. 5인의 중등과학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별적으로 반구조적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질적 사례 연구 기법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타당한 해석을 위하여 참여자들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 이들이 직접 제작한 교사연수자료 및 교수 학습자료를 참조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만의 고유한 교육활동에 대한 갈망’, ‘확장된 교실 공간으로서의 유튜브’, ‘교실의 장벽 너머로 확장된 관계망’, ‘인정욕구의 충족과 유튜브로서의 정체성 경험’, ‘전통적 교육공간과 유튜브 공간 사이의 긴장’, ‘장인으로 거듭나기’, ‘교사-유튜버로서 자신만의 방향 찾기’라는 크게 일곱 가지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중등학교와 교실 안에서 한정되던 중등과학교사의 정체성과 욕구가 유튜브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확장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튜브는 과학교사들이 자신들만의 이상을 실현하고 즐거움을 느껴 볼 수 있는 공간이며, 이 공간 내에서의 행동을 일상 공간 속의 규범과 찾대로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이들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유튜브, 헤테로토피아, 중등과학교사, 유튜브 활동, 정체성

References

- Castells, M. (1997). *Power of identity: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lackwell Publishers.
- Choi, W., Kim, C., & Lee, D. (2021). A life history research on the identity and role of Youtube creat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7(3), 219-243.
- Collins, H., Evans, R., Gorman, M. (2007). Trading zones and interactional expertise.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38, 657-666.
- Flavin, M. (2021). Wikipedia = Heterotopia. *New Review of Hypermedia and Multimedia*, 27(4), 324-338.
- Foucault, M. (2014a). *Des espaces autres. Dits et écrits 1954-1988*. (S. K. Lee, Trans.) Munji Publishing Company. (Original work published 1967).
- Foucault, M. (2014b). *Le corps utopique / Les hétérotopies*. (S. K. Lee, Trans.) Munji Publishing Company. (Original work published 1967).
- Galison, P. (1997). *Image and logic: A material culture of microphys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utiérrez, K. D. & Rymes, B., 1995, Script, counterscript, and underlife in the classroom: James Brown versus Brown v. board of education, *Havard Educational Review*, 65(3), 445-471.
- Han, H. K. (2009). A study on the ‘classroom space metaphors’ in classroom research.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4(6), 832-850.
- Han, J. Y., Hong, J. E., Seo, H. A., Shin, S., Im, S. M., & Cha, J. H. (2020). Pre-service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overseas educational voluntary activ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40(2), 587-616.
- Han, J. Y., Seo, H. A., Cha, J. H., & Hong, J. E. (2019). Study on the system of overseas educational voluntary activity: Focused on Nicaragua. *Teacher Education Research*, 58(1), 65-80.
- Heo, S. Y., Kim, S. W., Yoo, J. (2021). An autoethnography on the experience of non-face-to-face operation of science museum education planner in COVID-19.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7), 739-757.
- Jang, E. M., & Han, H. J. (2017). Existent, but non-existent spaces for others : Focusing on discourse-spaces of a Korean movie <The bacchus lady>(2016).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4, 99-123.
- Jeong, E., & Son, J. (2021). Analysis of the users’ viewing characteristics of YouTube video contents related to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45(1), 118-128.
- Johnson, P. (2013). The geographies of heterotopia. *Geography Compass*, 7(11), 790-803.
- Jung, J. H. (2017). Distinctiveness as an alternative concept for teacher professionalism.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3(1), 29-65.
- Jung, Y. H., Shin, S., Lee, J. K. (2019). Variations of shared learning in trading zone: Focus on the case of teachers in the ‘learning community of woodworking’,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43(2), 239-257.
- Jyun, H. Y., & Hong, H. G. (2010). Students’ perceptions on Chemistry I class using YouTube video clips.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54(4), 465-470.
- Kellner, D., & Kim, G. (2010). YouTube, critical pedagogy, and media activism. *The Review of Education, Pedagogy, and Cultural Studies*, 32(1), 3-36.
- Kim, B. S. (2017). The space of self-care subject, heterotopia. *Modern Philosophy*, 10, 105-134.
- Kim, J. S., & Yim, Y. (2015). Finding myself in Adygeya: Exploring the purpose of volunteer abroad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isure Studies*, 13(2), 69-88.
- Kim, M. S., Kang, D. Y., Lee, H. O. (2021). Analyzing storytelling represented in educational convergence content of science museums’ YouTube video.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39(3), 11-25.
- Ko, M. S. (2003). New perspective of education for identity: Narrative identity.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0(1), 5-32.
- Kong, H. J., & Kim, Y. H. (2021). The meaning of conservation of Eulji-ro region interpreted from the concept of placeness in heterotopia.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22(3), 45-56.
- Lee, G. G., & Hong, H. G. (2021). Science education experts’ perception of the remote laboratory sessions provoked by COVID-19.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41(5), 391-400.
- Lee, J. D. (2006). The space of heterotopia; Theater. *The Journal of Korean Modern Literature*, 16, 185-211.
- Lee, K. S., & Wei, H. (2020). Social media as heterotopia: Applying Foucault’s concept of heterotopia to analyze interventions in social media as a networked public.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3(2), 5-17.
- Lee, S. H. (2014). L’espace dans le rapport?l’heterotopie, le syberspace et

- le theatre. *The Journal of Drama*, 42, 157-183.
- Lee, Y. (2021). The influence of flow through the recommender system on YouTube users' impulse viewing.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Research*, 26(1), 23-43.
- Lee, J. K., Lee, T. K., & Ha, M. (2013). Exploring the evolution patterns of trading zones appearing in the convergence of teachers' ideas: The case study of a learning community of teaching volunteers 'STEAM teacher commun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33(5), 1055-1086.
- Liddle, A. (2021). Classroom as heterotopia: English lessons as a space to problematise war.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42(7), 951-967.
- Lin, Z., & Yan, L. (2020). A digital promised land? Digital landscape as a heterotopia for disabled people in China.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3(8), 1220-1234.
- Maslow, A.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 Miller, E. R., Morgan, B., & Medina, A. L. (2017). Exploring language teacher identity work as ethical self-formation. *Modern Language Journal*, 101, 91-105
- Ministry of Education (2019). Guidelines for Teachers' YouTube Activities.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797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Ministry of Education (2021). Guidelines for Teachers' Internet Personal Media Activities.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27&boardSeq=9045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5&opType=N>
- Noh, I., Jung, H., & Woo, Y. (2021). Exploring the sustainability of implementing online education as a higher education's New Normal in Post-Corona Era.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7), 245-263.
- Park, S. (2013). Identity, The beginning word of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humans and space.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8(3), 453-481.
- Park, S. W., & Park, S. Y. (2022).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born in the 1990s: Inter-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difference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9(1), 1-30.
- Rosenthal, S. (2018). Motivations to seek science videos on YouTube: free-choice learning in a connected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Part B Communication and Public Engagement*, 8(1), 22-39.
- Sennett, R. (2008). *The Craftsman*. Yale University Press.
- Seong, Y. K., Choi, S. K., Kim, S. T., & Oh, H. J. (2021). A study of activating plans for YouTube channels of teacher librarians in school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3), 163-185.
- Shim, H. R. (2022). Media space, expanded reality and heterotopia. *Journal of AI Humanities*, 11, 9-35.
- Shin, S., Ha, M., Lee, J. K. (2020). Images of decomposition of hydrogen peroxide demonstration represented in new media contents: Focusing on simulacra and simul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40(1), 13-28.
- So, K., & Choi, Y. R. (2019). A critical review on understandings of teacher identity revealed in Korean education research.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6(3), 289-313.
- So, K., & Park, N. (2020). Can teachers be change agents? A critical analysis of teacher images in school reform policies. *Asia-Pacific Education Researcher*, 31, 39-48.
- Song, J., Kang, J. (2018). Two daughters of Megalia : Identity differentiation in response to the anonymity level in online community, 52(4), 161-206.
- Sung, H., & Yi, S. Y. (2021). Exploring the phenomenological learning implications of camping 'spacing out' through Foucaul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21), 169-181.
- Wardak, D., Vallis, C. & Bryant, P. (2022). #OurPlace2020: Blurring boundaries of learning spaces. *Postdigital Science and Education*, 4, 116-137.
-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ition. SAGE Publications Inc.
- Yon, H. S. (2022). Foucault's space of outside and community of heterotopia. *A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33(2), 95-132.

저자정보

신세인(충북대학교 교수)
이준기(전북대학교 교수)